

##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살리기

고 희 주

어느 한가한 토요일 날. 나는 오랜만에 물놀이를 하러 명암계곡을 찾았다. 나는 너무 놀랐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물을 찾아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다닌다. 그런 곳 도 사람들이 많아 주차시킬 곳이 없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갔는데 그 곳은 공사 중이어서 더럽기도 했고, 흙탕물도 흘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에 쓰레기를 버려 놓았다. 나는 흙탕물을 보고 놀랐다. 예전에는 맑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더러워졌다니 ... .. 그리고 망설이다 물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보았는데 바닥 돌맹이에 끼여 있는 쓰레기를 보았다. 잠자리 통인데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었다. 그래서 물 안에서 끌어 당겼다. 그리고 나는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 이 물은 더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엄마가 “그럼 물을 아껴 쓰고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쓰레기를 보면 줍고 또한 물을 소중히 여기면 돼.”

“그럼 나도 이제 실천 해야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 한 후 엄마가 “희주야,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란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해.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맹물을 돈 주고 비싸게 사먹는단다. 그리고 물은 다시 쓸 수 있어. 하수처리장을 거쳐 다른 곳으로 가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걸러 내 소독을 하고 다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을 살려야겠지?” 라는 엄마가 했던 말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후 물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물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물을 아껴 썼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엄마가 “물은 자동차,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오염되기도 하고 세제나 다른 하수로 인해 오염이 되기도 한단다. 그러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자전거나 걸기를 하면 좋지. 그리고 우리가 놀고 온 자리의 쓰레기를 치우고 세제나 샴푸 등의 사용을 줄이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을 보호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우선 봉사활동으로 계곡 청소를 하고 기름 유출 현장으로 가서 체험을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구나.” 나는 이 말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하니 돈도 절약되고 물도 아낄 수 있고 일석이조였다. 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실천이었다. 나는 물을 소중히 여기고 나 먼저 실천. 이 말을 꼭 기억해 우리고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을 다시 깨끗하게 살릴 것이다. 내 마음속의 물도 살아나고 있다.